

## 대순진리회 구천상제(九天上帝) 신앙과 도교 보화천존(普化天尊) 신앙 비교

위귀칭(于国庆)\*

사천대학교 · 강사

- |                                     |   |
|-------------------------------------|---|
| I. 신의 기원으로 본 ‘구천상제’와<br>‘보화천존’신앙 비교 | III. 도세법문(度世法門)으로 본 ‘구천<br>상제’와 ‘보화천존’ 신앙 비교<br>맺음말 |
| II. 칭호로 본 ‘구천상제’와<br>‘보화천존’신앙 비교    |   |

대순진리회는 한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로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하 구천상제<sup>1)</sup>)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며, 구천상제가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고 인간개조·정신개벽 실현·포덕천하·구제창생·지상천국건설을 주장하는 종교단체이다. 대순진리회는 조정산 도주가 만주 봉천에서 구천상제의 대순진리를 감오득도하고 종통을 계승하여 창교한 이래 한국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으며 한국사회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를 주신(主神)으로 신앙하는 종교단체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와 중국 도교에서 모셔지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하 보화천

---

\* 중국 산둥성 출생, 철학박사, 사천대학교 도교와 종교문화연구소 노자연구원 강사, 『老子學刊』·『道學研究』 편집부주임.

1) 문장의 편리를 위하여 특별한 설명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본문 중의 ‘구천상제’는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를, ‘보화천존’은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토대로 본 글에서는 신의 기원과 칭호의 확립 및 그 의미 그리고 인세(人世)에 대한 역할 등의 관점에서 두 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하나씩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 분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I. 신의 기원으로 본 ‘구천상제’와 ‘보화천존’ 신앙 비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즉 ‘구천상제’는 대순진리회에서 절대적으로 숭고한 신성(神聖)의 지위에 있다. 그 근원을 보면 ‘구천상제’는 원래 천지인 삼계의 최고신으로서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바로잡고, 무궁한 후천의 선경을 세우며,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세계창생을 구제하고자” 인간의 육신으로 강씨 종가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하나는 육신으로 강씨 종가에 태어났다는 점<sup>2)</sup>, 다른 하나는 강씨 성은 상고 신농씨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sup>3)</sup>.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점을 보기로 하자. 상제는 육신으로 강씨가문을 선택하여 태어났다. 중국의 성씨 연원을 보면 강씨는 아주 오래된 성씨로서 황제(黃帝)와 동시대 인물인 염제(炎帝)가 바로 강씨이다. 『국어·진어사(國語·晉語四)』에서는 “옛날 소전(少典)은 유교씨(有嬌氏)의 두 딸을 부인으로 맞아 황제(黃帝)와 염제(炎帝)를 낳았다. 황제는 희수(姬水)가에서 자랐고, 염제는 강수(姜水)

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전경』(간체본), 행록 1장 5절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년 7월), p.2, 아래 『전경』 인용은 모두 동일 판본을 인용.

3) 『전경』, 행록 1장 1절.

가에서 자랐으며, 성장하면서 덕행(德行)을 달리하게 됨으로써, 황제는 희씨(姬氏), 염제는 강씨(姜氏)가 되었다.(昔少典娶于有嬌氏, 生黃帝、炎帝, 黃帝以姬水成, 炎帝以姜水成. 成而異德, 故黃帝爲姬, 炎帝爲姜)”라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설문(說文)』에서는 “강씨는 신농씨가 강수(姜水) 가에서 생활했기에 강씨 성을 가지게 되었다.(姜、神農居姜水, 因以爲姓)”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환광(趙宦光)은 『설문장전(說文長箋)』에서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강(江)의 명칭은 인간의 성씨에서 오고 여성의 성씨를 따르는데, 만약 강(江)의 이름에 의해 강(姜)성이 생긴 것이라면, 여성의 성씨를 따른다는 것이 의미를 잃게 된다(水因姓而名, 故從女, 若水先名姜, 從女便無義)”라고 하였다. 우성오(于省吾)는 이에 대해 “조환광의 분석이 지극히 정확하다(趙說至確)”<sup>4)</sup>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강씨와 염제 그리고 신농씨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sup>5)</sup>. 본고에서는 강씨와 염제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신농씨와 강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노사·후기·치우전(路史·後紀·蚩尤傳)』에 의하면 “판천씨치우(阪泉氏蚩尤)는 강씨 성 염제의 후손이다(姜姓炎帝之裔也)”라고 하였다. 『좌전·애공구년(左傳·哀公九年)』에는 “염제는 불(火)의 주재자였는데 성이 강씨였다(炎帝爲火師, 姜姓其後也)”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강씨 성은 상고시대 염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강씨 성은 대대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인물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잠부론·지씨성(潛夫論·志氏姓)』에 “염제(炎帝)의 후손인 사악(四嶽 : 사방부락의 수령)과 백이(伯夷)가 요제의 전례(典禮)제도를 관장하였으며, 형법

4) 于省吾, 『釋羌、筍、敬、美』,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1963年第1期), p.43.

5) 염제와 신농씨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같은 부족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부족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들의 관계 보다는 신농씨와 강씨, 염제와 강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을 세워 민중들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이들은 신(申)과 여(呂)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신과 여 지역의 후손들이 강상(姜尙)을 낳았고, 강상은 주문왕의 스승이 되었다. 강상은 주문왕을 보좌하여 상(商)나라를 굴복시켰으며, 제(齊)나라의 수령에 봉해졌다. 그의 후예들은 다시 허향(許尙), 기(紀), 신(申)의 수령에 봉해졌는데, 이들은 모두 염제의 후손국이므로 모두가 강성(姜姓)이라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 등이다.

고대인들이 염제에 대한 묘사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황제와 염제는 수화(水火)로 대응하였다(兵所自來者久矣, 黃、炎故用水火矣)”, 『여씨춘추』 「맹하기(孟夏紀)」, 「중하기(仲夏紀)」, 「계하기(季夏紀)」의 “기제 염제(其帝炎帝)”, 『백호통·오행(白虎通·五行)』의 “염제는 태양신이다(炎帝者, 太陽(神)也)”, 『좌전·소공십칠년(左傳·昭公十七年)』의 “염제는 불을 잘 썼기에 화사(火師)라 불리고, 화명(火名)을 갖게 되었다.(炎帝以火紀, 故為火師而火名)”는 글, 『공자가어·오제(孔子家語·五帝)』의 “그러므로 명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행에 해당하는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염제는 불(火)에 해당하였다.(故其為明王者而死配五行, 是以炎帝配火)”는 기록, 『淮南자·천문훈(淮南子·天文訓)』의 “남쪽은 불(火)에 속한다. 그 곳의 군주(帝)는 염제인데 주명(朱明)이 그를 보좌하였고, 저울을 가지고 여름을 다스렸다(南方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라는 기록 등이다.

이상의 몇 가지 단서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강씨 성을 가진 염제는 태양신(日神), 남쪽, 불(火) 등 상징적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구천상제’가 강씨 성으로 강립한 것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sup>6)</sup>.

6) 『전경』, 행록 4장 17절,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 풍신(風身), 풍골(風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로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만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이로 볼 때, 구천상제께서 강씨 종가에 태어난 것은 깊은 의미가

위 상황을 이해하면 ‘강성상제’의 강세 시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모친은 권씨이며 휘는 양덕이니 이평면 서산리에 근친가서 계시던 어느 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석달 만에 상제께서 탄강하셨도다.”<sup>7)</sup>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다”, “큰 불덩이가 몸을 덮치다”,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등 현상들은 모두 일(日), 화(火)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다<sup>8)</sup>. 옛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천둥번개는 곧 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고대인들은 심지어 천둥번개와 태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구천상제’는 태양신(日神)과 뇌신(雷神)의 이중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뇌신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순진리회의 경전에는 ‘구천상제’가 뇌법을 사용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sup>9)</sup>, “상제께서 경석의 집에 들러 글을 써서 벽에 붙이고 ‘내가 머무는 곳을 천지가 다 알아야 하리라’고 말씀 하시니 갑자기 천둥이 치는지라.”<sup>10)</sup>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레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sup>11)</sup>

두 번째 중요한 점인 강씨 성이 상고 신농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석해 보자. 『설문』에 “강, 신농씨가 강수 변에서 생활했기에 강(姜)을 성씨로 한다.(姜, 神農居姜水, 因以為姓)”고 하였다. 이 문장은 신농씨와 강씨의 관계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신농씨

있다.

7) 같은 책, 행록 1장 9절.

8) 같은 책, 예시 20절, “나는 이제 七十二둔으로써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이화(三離火)니라”, 이로 볼 때, ‘구천상제’의 신앙과 불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

9) 같은 책, 행록 3장 36절.

10) 같은 책, 교운 1장 21절.

11) 같은 책, 교운 1장 25절.

에 관련된 기록은 전국시대 후기에 나온다. 신농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역·계사하(易·繫辭下)』에 “포희씨가 멀하고, 신농씨가 일어섰다. 나무를 잘라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자루를 만들며, 쟁기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包犧氏沒, 神農氏作. 斫木為耜, 揉木為耒, 耒耨為利, 以教天下)”라고 하였다.

『장자·도적편(莊子·盜蹠篇)』에 “신농의 시절 … 백성들은 모친은 알고, 부친은 몰랐다. 미록과 같이 살고, 경작으로 음식을 구한다. 베를 짜서 옷을 만들었으며, 사람을 해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지극한 덕이 넘쳐 흘렀다(神農之世 … 民知其母, 不知其父, 與麋鹿共處, 耕而食, 織而衣, 無有相害之心: 此至德之隆也).”라고 하였다.

『상군서·화책(商君書·畫策)』에 “신농의 시절, 남성은 경작을 하고, 여성은 베를 짰다. 나라는 다스리지 않아도 잘 운영되었으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군주에 올랐다.(神農之世, 男耕而食, 婦織而衣, 刑政不用而治, 甲兵不起而王)”라고 하였다.

신농씨는 중국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후세에서는 그를 삼황(三皇) 중 한 사람으로 높이 추앙한다. 그 이유는 신농씨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기 민간의 풍습이 순박해지고, 백성들은 자유로운 사회적 환경과 질서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민중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는 신농씨가 다스리던 세상을 중국 상고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삼고 있다. 도교에서 신격화하는 신농씨가 다스리던 세상과 ‘구천상제’가 건설하려는 ‘후천선경’, ‘지상천국’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천상제’가 무엇 때문에 신농씨의 후손인 강씨 종가에서 태어나기로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전경』에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이니라.”<sup>12)</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지상천국’의 특징을 보면, 일정한 부분은 신농씨가 다스리던 세상을 재건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도교에서는 신농씨가 다스리던 사회이념을 계승하였고, 이는 다시 ‘선경사상(仙境思想)’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통치 이념을 만들어 냈는데, 혹 이런 사유가 대순사상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sup>13)</sup>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와 비교할 때,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뇌신의 특징뿐만 아니라 뇌부(雷部)의 최고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의 기록에 의하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옥청천(玉清天)에 거주하며, 중생의 아버지(為群生父)이고, 만령의 스승(為萬靈師)이며, 오뢰천립삼계를 통솔(總司五雷天臨三界)한다고 하였다.<sup>14)</sup> 또한 ‘뇌사위심화부(雷司委心火部)’라 하였는데, 해석하면 “뇌사호용은 천지와 몸을 같이하고, 일월과 밝기를 같이한다. … 그러므로 성심을 다해 화부(火部)를 다스리는 것은 뇌사호용의 본연의 마음인 것이다.(雷師皓翁，與天地同體，日月齊明。… 所以盡心于火部者，乃雷師皓翁之本情也)”<sup>15)</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뇌신과 일신(日

12) 같은 책, 공사 1장 3절.

13)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학자인 후쿠이 고준(福井康順) 등이 감수한 『도교』(3권)에서는 도교가 한국의 신종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말하고 있다. 그 중 ‘선경사상’을 통해 도교가 대순진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후에 흠치교의 교조가 된 강일순 또한 ‘후천선경’의 건설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 『대순전경』 중의 ‘나는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여 조화(造化)로써 천지를 개벽(開闢)하고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선경(仙境)을 열어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衆生)을 건지려 하노라’ 라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日]후쿠이 고준(福井康順) 등 감수, 『도교』(3권), 주위에리(朱越利) 등 역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1992), p.109.

14)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道藏』(文物出版社、上海書店、天津古籍出版社, 1988年, 第1册), p.758. 아래 인용문은 같은 판본의 책을 인용한 것임.

神), 월신(月神)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면들은 필자가 ‘구천상제’의 신적 기원을 분석한 것과 일치한다.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인간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간세상이 “세도(世道)가 미미해져, 인간의 덕행이 사라졌다. 군주에 충성하지 않고, 부모에 효도하지 않으며,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형제간의 우정이 없다. 부부 사이의 믿음이 없고, 친구의 의리가 없으며, 천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삼광(三光)에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오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몸과 마음의 죄를 마다하지 않는다. 상도를 지키지 않으며, 살생을 서슴지 않고, 이익을 쟁기고, 간음을 범하고, 미신과 반역을 마다하지 않는다.(世衰道微, 人無德行。不忠君王, 不孝父母, 不敬師長, 不友兄弟, 不誠夫婦, 不義朋友, 不畏天地, 不懼神明, 不禮三光, 不重五穀, 身三口四, 大稱小鬥, 殺生害命, 人百己千, 奸私邪淫, 妖巫叛逆)”<sup>15)</sup>라고 말해지는 말세에 있었기에 ‘보화천존’은 대라원시천존(大羅元始天尊) 앞에서 “청정심으로 큰 소원을 말하느니, 그 소원이 미래에 이루어져, 모든 중생, 천룡귀신이 나의 이름만 불러도 곧바로 달려가리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직접 처리하리다.(以清淨心發廣大願, 願于未來世, 一切衆生, 天龍鬼神, 一稱吾名, 悉使超換。如所否者, 吾當以身身之)”<sup>17)</sup>, 그리고 “지혜로써 악마를 물리치리다. 떠돌아다니는 혼백을 구제하여 백성에 도움이 되게 하리다. 은하수가 흐르듯이 수천만 년을 계속하리다. 미래에 맹세하나니 천존의 가르침을 영원히 선양하리다.(能以智慧力, 攝伏諸魔精。濟度長夜魂, 利益于衆生。如彼銀河水, 千眼千月輪。誓于未來世, 永揚天尊教)”<sup>18)</sup>라고 하였다. 이런 점들은 ‘구천상제’의 대순의 목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5)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 卷上, 『道藏』, 第2册, p.573.

16)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道藏』, 제1책, p.761.

17) 같은 책, p.758.

18) 같은 책, p.761.



## II. 칭호로 본 ‘구천상제’와 ‘보화천존’신앙 비교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와 도교의 ‘보화천존’은 신적 기원의 측면에서 비교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칭호에서도 적지 않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대순진리회요람』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를 중심으로 타 자료를 곁들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래는 두 경전에서 나오는 원문이다.

	대순진리회 ‘구천상제’ 신앙	도교 ‘보화천존’ 신앙
칭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약칭‘구천상제’) 19)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혹은 구천정명대성(九天正明大聖) <sup>20)</sup>
구천(九天)	“구천은 바로 상계에서 삼계를 통찰하사 건곤을 조리하고 운화를 조련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임을 뜻한다.” <sup>21)</sup>	“구라 함은 양수이며, 천도이다. 진궁에 거주하기에 동남에 구기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곳은 곧 뇌사가 출입하는 곳이다. 천이라 함은 지대지성하고 무극무위한 기임을 뜻한다.(九者, 陽數也, 乃天道也。主于震宮, 故東南有九炁之說也, 即雷師出入之地也。天者, 至大至聖無極無爲之炁也)” <sup>22)</sup> “구천이란 삼십육천을 총괄함을 말한다. 동남 구기에서 시작해 뇌문을 나온다. 삼십육천의 령을 다스리며, 제 사무원의 인(印)을 받는다. 선함을 돕고 악함을 멸하며, 인정에 따르지 않는다. 구천이라고 존칭한 것은 양성(陽性)의 강한 면모를 반영하고 백성들과 호칭을 구분하기 위해서다.(九天者, 乃統三十六天之總司也。始因東南九炁而生, 正出雷門, 所以掌三十六雷之令, 受諸司府院之印, 生善殺惡, 不順人情。蓋以九天之名者, 取其陽剛而不泯者之謂也)” <sup>23)</sup>
응원(應元)	“모든 천체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천명에 응하지 않고 생성됨이 없음을 뜻한다.” <sup>24)</sup>	“응이라 함은 천명을 받지 않고 생성된 사물이 없음을 말한다. 원이라 함은 지극히 큰 것을 말한다. 또한 만선의 주장이며 사시의 우두머리이고, 오행의 선두이다.(應者, 無物不承天命而生也。元者, 至大也。又口萬善之長也, 乃四時之首也, 五行之先也)” <sup>25)</sup> “응원이라 함

		<p>은 원시조께서 하나의 기를 나누어 만들어진 참 모습을 우러러 보는 것으로, 옥청진왕이 응원하여 이루어진 체이다.(應元者, 仰惟元始祖劫一炁分真, 玉清真王應元之體)<sup>26)</sup></p>
<p>너성 (雷聲)</p>	<p>“천령이며 인성인 것이다. 너는 음양이기의 결합으로써 성쇠된다. 너는 성의 체요, 성은 너의 용으로서 천지를 나누고 동정진퇴의 변화로 천기와 지기를 승강케 하며 만물을 성장하게 하고 생성변화 지배자양 함을 뜻한다.”<sup>27)</sup></p>	<p>“너라 함은 천령이다. 생살대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인간세상을 살펴보고, 만신이 봉행한다. 성이라 함은 생을 말하는데, 만물은 우레 소리로 하여 싹을 틔우게 된다. 또한 우레 소리는 하늘을 대신해 말한다기도 한다.(雷者, 乃天令也。掌生生殺殺之權, 動靜人莫可測, 萬神之奉行也。聲者, 生也, 萬物得雷震聲而萌也。又曰天不言以雷代言也)<sup>28)</sup> “너라 함은 음양이기가 결합하여 생긴 것으로 너정이 있고, 구천너조에 속해 있다. 이것은 오속으로 나뉘며 신소진왕이 이를 운용하여 삼계를 주재한다. … 소리라 함은 천지의 인자한 소리이다. 춘분 5일에 너성이 발하면, 그 소리가 백리에 까지 미치고, 구천과 구지를 진동하며, 사해와 사명을 뒤흔든다. 태상이 말하기를 ‘나는 음양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나의 큰 소리는 근원이 없기에, 우레 소리를 내고 기를 부른다. 너제의 앞에는 36면의 너고가 있는데, 우레를 울리 때에는 너제가 친히 앞에 있는 북을 두드린다. 이때 너공과 너신이 다시 너성을 울리게 된다’ 라 하였다.”(雷者, 陰陽二炁結而成雷, 既有雷聲, 遂分部隸九天雷祖。因之以剖析爲五屬, 神霄真王用之, 以宰禦三界。……聲者, 天地之仁聲也。春分五日, 雷乃發聲, 可聞百裏, 震九天而動九地, 驚四海而翻四溟, 太上曰: 吾不發陰陽之聲, 吾之大音無以召, 故鼓之以雷聲, 以聲召氣也。雷帝之前, 有雷鼓三十六面, 凡行雷之時, 雷帝親擊本部雷鼓一下, 即時雷公雷神興發雷聲也)<sup>29)</sup></p>
<p>보화 (普化)</p>	<p>“우주의 만유가 유형 무형으로 화성됨이 천존의 덕화임을 뜻한다.”<sup>30)</sup></p>	<p>“보라 함은 상천하지, 사유광황, 무형유형을 말한다. 화라 함은 천도 음양 운행의 변화를 말한다. 또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화하면서, 만물이 생성 변화함을 말한다. 노자가 말하기를 ‘내가 무위일 때 백성은 스스로 화한다. 그리고 덕으로 화해야 한다’고 하였다.(善者, 上天下地, 四維八荒, 無形有形也。化者, 天道陰陽運行則爲化, 又自無而有, 自有而無則爲化, 萬物生息則爲化。老子雲: 我無爲而民自化。又雲以德化是也)<sup>31)</sup></p>

<p>천존 (天尊)</p>	<p>“군생만물을 너성으로 보화 만방 하시는 지대지성한 삼계의 지존임을 뜻한다.”<sup>32)</sup>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너성 보화 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sup>33)</sup></p>	<p>“천존이라 함은 지극히 크고 존귀한 칭호이다.(天尊者, 至大至貴之稱也)”<sup>34)</sup> “보화천존이라 함은 부러워시천존께서 아들 아홉 명을 낳았는데, 옥천진왕이 너성보화천존으로 화한 것을 말한다. 천존은 변화에 맞춰 수시로 모습을 드러낸다. 원시조께서 일기(一氣)를 진으로 나누어 나타낸 모습의 하나가 옥청진왕인데, 그는 구소를 주재한다. 또한 일월사진으로 만천하를 감시하고, 삼계 구주 만국을 순시하며, 선함을 보상하고 과오를 기록하니, 실로 지극히 크고 존귀한 보화인 것이다.(普化天尊者, 自浮黎元始天尊生九子, 玉清真王化生雷聲普化天尊。天尊以曆劫應化, 隨時示號。本元始祖劫一炁分真, 乃玉清真王, 九霄主宰。一月四辰監觀萬天, 浮遊三界九州萬國, 賞善錄愆, 是爲普化至大至貴也)”<sup>35)</sup></p>
<p>강성상제 (姜聖上帝)</p>	<p>“삼계대권으로 주재 관령하시며 관감만천하시는 진지전능한 하느님의 존칭임을 뜻함이다.”<sup>36)</sup></p>	

이상 단서에 근거하여 필자는 ‘구천상제’와 ‘보화천존’의 칭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 19) 대순종교문화연구원소편찬, 『대순진리회요람』 간체본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 p.2. 아래 『대순진리회요람』은 같은 판본을 인용함.
- 20)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道藏』, 第1册, p.759.
- 21) 『대순진리회요람』, p.2.
- 22)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上, 『道藏』, 第2册, p.569.
- 23) 같은 책.
- 24) 『대순진리회요람』, p.3.
- 25)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卷上, 『道藏』, 第2册, p.569.
- 26) 같은 책.
- 27) 『대순진리회요람』, p.3.
- 28)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卷上, 『道藏』, 第2册, p.569.
- 29) 같은 책, pp.569—570.
- 30) 『대순진리회요람』, p.3.
- 31)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卷上, 『道藏』, 第2册, p.569.
- 32) 『대순진리회요람』, p.3.
- 33) 『진경』, 교운 2장 55절.
- 34)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卷上, 『道藏』, 第2册, p.569.
- 35) 같은 책, p.570.
- 36) 『대순진리회요람』, p.3.

	공통점	차이점
호칭	양자 모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을 호칭의 주체로 삼고 있다.	‘구천상제’는 ‘보화천존’에 비해 ‘강성상제’라는 칭호가 추가되었다. 그 외 ‘보화천존’은 ‘구천정명대성(九天真明大聖)’이라는 칭호가 있지만 ‘구천상제’는 없다.
구천	양자 모두 신명계에서 상당히 높은 ‘구천’이라는 신격을 부여받았다. 즉, 이들의 신위는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신통(神通)과 신권(神權)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화천존’은 뇌부의 최고신명으로 ‘구천’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즉, “구라 함은 진궁에 있으며, 이곳은 뇌사가 드나드는 곳이다. 구천이라 함은 36천을 통솔하는 총부이다. 동남의 구기에 의해 생겨났으며 뇌문을 나왔기에 36뇌를 다스린다.(九者, 主于震宮, 即雷師出入之地也; 九天者, 乃統三十六天總司也。始因東南九炁而生, 正出雷門, 所以掌三十六雷之令)” 그리고 도교에서는 ‘보화천존’을 최고신으로 모시지 않는다. ‘구천상제’ 신앙에서는 그가 신계에서 최고의 신명임을 강조할 뿐, 뇌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응원	양자 모두 응원이란 천지만물이 모든 성취를 이루려면 “천명에 응해야 하고, 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보화천존’ 신앙에서는 ‘응원’을 더욱 자세하게 해석하는데 기, 사시, 오행, 천천진진(옥청진왕-玉淸眞王) 등을 등장시켜 비교적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뇌성	양자 모두 음양이기가 상응하여 뇌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뇌성은 뇌의 용이고, 뇌는 뇌성의 체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 뇌는 뇌성을 통하여 만사만물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뇌성은 만물에 대하여 생과 사를 주재하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보화천존’ 신앙에서는 ‘뇌성’을 설명할 때, ‘성(聲)’을 ‘생(生)’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로써 만물은 뇌성을 들음으로써 짝을 띄우게 됨을 밝혔다. 그리고 태상노군과 기타 신명들을 등장시켜 뇌성이 곧 신명들의 행위임을 설명한다. 이런 점들은 ‘구천상제’ 신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보화	양자 모두 우주의 모든 만물, 유형이든 무형이든 막론하고 보화를 받아 생명을 연속한다고 보았다.	‘보화천존’ 신앙에서는 ‘천도음양, 무위자화(天道陰陽, 無為自化)’ 등의 이론을 등장시켜, ‘보화’ 이론과 구체화 과정이 더욱 세밀하고 완만해지도록 하였다.
천존	양자 모두 천존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화천존’ 신앙은 ‘구천상제’ 신앙과 마찬가지로 만물을 화생한다는 의미에서 ‘천존’을 해석하지만, 도교의 최고신인 ‘원시천존’의 아들이라는 각도에서도 ‘보화천존’을 설명하여 지극히 존귀하다고 하였다. ‘구천상제’ 신앙에서는 이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성상제		‘구천상제’ 신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다.

### Ⅲ. 도세법문(度世法門:세상을 제도하고자 펼친 법도)으로 본 ‘구천상제’와 ‘보화천존’ 신앙 비교

대순진리회의 『전경』에는 ‘구천상제’가 인세에 강림한 후 실천한 도세법문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참법(懺法), 부주(符咒), 의술(醫術), 유학(儒學) 등이 이에 속한다. 아래에서는 도세법문 중 대표적인 수행법을 분석하여 ‘구천상제’ 신앙의 특징을 알아보는 동시에, 본 신앙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비교할 내용은 대순천하의 사상에 관한 것이다. 『전경』은 ‘구천상제’께서 대순하신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즉, 여러 신명들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하소연하므로” 구천상제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동토에 그쳤다”<sup>37)</sup>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대순의 의미는 “삼계를 대순하고, 개벽 공사를 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세상이 혼란, 불공평, 죄악 등에 빠졌기에 구천상제가 육신으로 화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인간 세상에 강림한 후 대순의 진리를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천상계에 돌아간 후에는 대순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여 정신개벽으로 인간개조를 실천하고 포덕천하, 구제창생을 통하여 지상 신선 실현과 지상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였다.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도 ‘순시천하(巡視天下)’라는 사상이 있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에 “나는 구천정명대성이요, 매월 초육일 및 중순 신일에 만천하를 둘러보고 삼계를 순시한다. 누군가 도를 배우고자 하거나, 신선이 되고자 하거나, 구소에 가고자 하거나, 삼재를 피하고자 할 때 정일도사한테 명하여 누관에서든, 가정에서든,

37) 『대순진리회요람』, p.1.

부뚜막에서든, 물과 꽃을 바치고, 경을 읊는다면, 한 번, 세 번 혹은 다섯 번 또는 수십 수백 번을 읊은 후에 정신이 맑아지고 몸과 마음이 넓어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도 모두 감응으로 이루어진다.(吾是九天貞明大聖，每月初六及旬中辛日，監觀萬天，浮遊三界。若或有人欲學道，欲希仙，欲遣九玄，欲釋三災，當命正一道士，或自同親友于樓觀、于家庭，于裏社，酌水饋花，課誦此經，或一過，三五過，乃至數十百過，即得神清氣爽，心廣體胖。凡所希求，悉應其感)”<sup>38)</sup>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도교의 ‘구천응원 너성보화천존’의 순시천하 사상은 기본적으로 ‘대순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두 천하와 인간세상을 순시하는 것을 통하여 악을 퇴치하고 선을 따르게 하며 그리하여 인간 세상에 죄악과 겁액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이 과정에서 교리를 전파하고 그 교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였는데, 이것 역시 도교와 동일하다. 하지만 자세하게 따져보면 대순 사상과 도교의 순시 사상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보화천존’은 육신으로 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연인의 형태로 인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인간세상을 순찰한다든가 혹은 자신의 소리를 통하여 순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보화천존’은 창교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선경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신통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해원상생 사상에 관한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순진리회의 중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sup>39)</sup>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원상생’이란 해원상생의 진리로써 해원하고, 천지공사와 보은을 통하여 만고에 쌓인 원울을 풀어 세상에 더 이상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다.<sup>40)</sup> 이런 의미에서 볼 때

38)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道藏』, 제1책, p.759.

39) 『전경』, 교운 2장 32절.

40) 『대순진리회요람』, p.4 참조.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에서 추구하는 종지인 동시에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 되기도 한다. 『전경』의 여러 구절에서는 수행과 인세 제도의 법도 측면에서 ‘해원상생’을 해석한 부분이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41)</sup>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역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sup>42)</sup>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sup>43)</sup>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원상생’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에서는 인간이 지은 많은 죄악과 겁역은 세상 사람들이 맺은 원한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겁역과 죄를 해소하려면 해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

41) 『전경』, 공사 1장 3절.

42) 같은 책, 교운 1장 16절.

43) 같은 책, 예시 6절.

고 있다. 관련된 내용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병이 들어 몸져누워, 질고가 몸을 짓누르며, 고통이 쌓이고 쌓여 치료할 수도 없고, 의사를 찾아도 효과가 없고, 정신이 혼미하며, 몸에 기력이 없다. … 이는 지부 36옥명관과 72사가 모두 원한에 쌓여서 엉켜 붙은 결과이다. 저주를 받아 생긴 결과도 있고, 빚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삼세에 걸친 분쟁이 쌓이고 모여 원한이 되니, 그 몸이 마치 창고에 가두어 진 듯 재앙으로 에워싸이게 되었구나. 시간이 갈수록 죄업과 원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니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한 후 본 경을 송독해야 할 것이다. (沈病伏枕, 痼疾壓身, 積時弗廖, 求醫罔效, 五神無主, 四大不收. … 或地府三十六獄冥官七十二司有諸冤枉, 致此牽纏. 或盟詛咒誓之所招, 或債塚負償之所致. 三世結孽, 累劫興仇, 埒其咎尤, 庫其執對, 皆當首謝, 即誦此經)<sup>44)</sup>

일체의 기거동작, 출입과 기거함에 회피해야 할 것과 금기시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사람들은 모른다. 구설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밤을 세워 다투기까지 하므로 결국 화를 입게 된다. 또한 당사자와 마주하여서는 옳다고 하다가도 뒷전에서 그르다고 하여 구설의 시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다가, 뒷전에서 부처를 저주하는데, 처음에는 비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송사에 휘말려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며,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우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급히 본 경을 송독하라. 그러면 구설의 시비가 사라질 것이며, 송사 또한 영원히 평정될 것이다. (凡諸動作興舉, 出入起居, 不知避忌. 如遇官符口舌, 則使人擊聒. 曉夜煎燭, 多招唇吻. 面是背非, 動致口牙. 盟神詛佛, 始于謗讟, 終于詆訐. 由是獄訟生焉, 刑憲存焉. 若欲脫之, 即誦此經, 遂得口舌港消, 官符永息)<sup>45)</sup>

도교에서 말하는 ‘해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비, 질병, 겁액에

44)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 『道藏』, 제1책, p.759.

45) 같은 책, pp.759-760.



관한 것이며, 그 해결방법으로는 주로 마음속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을 읽는 것이다. 이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과 비교하면 사상의 폭이나 깊이, 중요성, 이론적 측면 등 면에서 비교적 간단하며,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지 못했다.

세 번째 비교 내용은 소리에 따라 감응한다는 사상에 관한 것이다. ‘구천상제’ 신앙의 수행방법 중에는 “소리에 따라 감응(隨聲顯化)”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리감응’이란 곤경에 처한 사람이 신명의 호칭을 부르면, 상응하는 신명이 달려와서 구원해주는 방법이다. 구천상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전경』에서는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시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sup>46)</sup>라 하였다.

‘소리감응’의 방법은 도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잘 알려진 ‘태을구고천존(太乙救苦天尊)’의 경우 자주 이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주었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역시 이런 방법으로 범인(凡人)들을 구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에 “일체중생, 천룡귀신 등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一切眾生, 天龍鬼神, 一稱吾名, 悉使超換)”, “미래에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한 번, 세 번 혹은 일곱 번, 또는 수백, 수천 번을 부르면, 내가 곧 시방에 화하여서, 삼계를 운용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바램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시방

46) 『전경』, 예시 41절.

삼계의 천지, 일월성신, 산천하목, 동물곤충 등은 알던 모르던, 천룡귀신을 포함하여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 만약 따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베어지고 미진으로 화할 것이다.(若未來世, 有諸衆生, 得聞吾名, 但冥心默想作是念, 言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或一聲, 或五七聲, 或千百聲, 吾即化形十方, 運心三界, 使稱名者, 鹹得如意。十方三界, 諸天諸地, 日月星辰, 山河草木, 飛走蠢動, 若有知若無知, 天龍鬼神, 聞諸衆生一稱吾名, 如有不順者, 鹹首刳心, 化爲微塵”, 이 외에도 “고난에 처했을 때, 일심을 다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부르면 해탈을 얻을 것이다.(遇諸險難, 一心稱名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悉得解脫)”<sup>47)</sup>라고 하였다.

넷째로 비교할 내용은 참법(懺法 : 懺悔法)에 관한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는 세인(世人)을 교화할 때 참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처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그 동안 지내 오던 허물을 낱알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칙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sup>48)</sup>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하시니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 후 김 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하셨도다.”<sup>49)</sup>

‘구천상제’가 사용한 참회의 방법은 먼저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자

47)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 『道藏』, 제1책, pp.758-761 참조.

48) 『전경』, 교운 1장 2절.

49) 같은 책, 교법 2장 28절.

신의 과오를 뉘우치면, 그 다음 상제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의 원한이 풀리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구천상제’의 참회방법은 ‘해원상생’에서 유래했으며, ‘해원상생’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참회의 의례는 형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내용도 비교적 소박하다.

도교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중심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참(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懺)』<sup>50)</sup>을 구성하였다. 이 책은 도교의 중요한 경전인 동시에 참회의 방법과 형식이기도하다. 기능면에서 대순진리회의 ‘참법’과 도교의 참의(懺儀)는 공통점을 보인다. 관련 내용은 즉, 수도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도에 정진하며,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포덕에 힘쓰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널리 펼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는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참법’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비교적 간단하며, 이와 비교해 볼 때,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참』은 형식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복잡하다. 도교의 ‘참법’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을 기반으로, 보참(寶懺)을 그 주요 형식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민중을 교화하여 선을 닦고 악을 근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스로 수행하여 구원받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세인들에게 선을 따르라는 목적을 실천하고 있다. 참법의 과정 면에서 봤을 때, 이론적인 측면이든, 의례의 형식적인 면이든, 민중들의 참여 과정이든, 영향력 면에서 모두 일정한 완성도를 보이며, 그리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또한 좋게 나타난다.

두 사상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아마도 도교가 참법을 사용한 역사가 오래된 데에서 비롯된 것 같다. 중국 문화에서 ‘참회’를 둘러싼 스스로의 뉘우침, 사죄로써 기복하는 종교형

50)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懺』, 『道藏』, 第3册, pp.549—552.

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후한서·채옹전(後漢書·蔡邕傳)』에는 참회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신명들의 용서를 받는 방술이 나오는데, “사죄는 곧 용서받음이다.(解除謂謝過也)”<sup>51)</sup>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참회 방법도 초기에는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도교 창립초기 태평도의 장각(張角)과 오두미도의 장수(張修)는 수행의 방법으로 참회를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빛과 화합하는 가운데 동방에 장각이 있고 한중에 장수가 있다.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장각은 태평도, 장수는 오두미도를 창립하였다. 태평도란 스승이 구절장을 들고 부와 주술을 운용하는 동안, 병자들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한 후 부수(符水)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병이 나은 사람은 도를 믿는 사람이고 낫지 않는 사람은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장수의 방법도 장각과 비슷하다. 조용한 방에 환자가 누워서 잘못을 뉘우친다. 신의 명을 받는 ‘제주’(祭酒)가 노자 오천문을 교화용 책자로 사용하며, 이를 공부할 것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공부하는 자는 신의 명을 받는다. 제주는 병자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병자의 이름을 쓰고, 그가 죄를 뉘우친 것을 밝힌다. 병자의 이름은 세 장의 종이에 써서, 그 중 한 장은 산 위에 올려 하늘에 통하게 하고, 다른 한 장은 땅에 묻고, 나머지 한 장의 종이는 물 속에 담그는데, 이러한 방법을 가리켜 삼관(천관, 지관, 수관)수서(三官手書)라 한다. 이를 행한 후에 병자로 하여금 다섯 말의 쌀로 보답하게 하니, 이로써 제주를 오두미사(五斗米師)라 일컫게 되었다.<sup>52)</sup>

수당시기 참회의 방법과 의식이 더 성숙되면서 도교의 참회 의례도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참법의 형식과 과정 역시 더욱 성숙되었는데 현존하는 『도장(道藏)』에는 2-30가

51) 『後漢書』, 권60, 『蔡邕傳』(北京: 中華書局, 1965年), 第7册, p.1993.

52) 『三國志』, 卷 8, 『張魯傳』, 裴松之注引, 『典略』。

지의 참회 방법과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명·청시기에 이르러 도교의 ‘참의(懺儀)’(법참, 보참, 참법(法懺, 寶懺, 懺法)이라고도 불림)는 도교 내부와 민중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대부분은 청나라 가경(嘉慶)년간에 저술된 것으로서 장지진(張持真)이 쓴 『참법대관(懺法大觀)』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참법대관』에는 『자부현조법참(紫府玄祖法懺)』, 『서화금모법참(西華金母法懺)』, 『벽락자항보참(碧落慈航寶懺)』, 『태을구고보참(太乙救苦寶懺)』, 『동악성제법참(東嶽聖帝法懺)』, 『문제원황보참(文帝元皇寶懺)』, 『여제무극보참(呂帝無極寶懺)』, 『관제충무보참(關帝忠武寶懺)』, 『삼모진군법참(三茅真君法懺)』 등 32종의 법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참법은 도교의 참법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참』을 형성하였으니, 그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비교적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신명의 근원, 명칭 및 그 의미, 이상사회의 실천방법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와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필자가 생각건대 두 신앙 사이에는 아주 많은 공통점들이 있으나, 차이점도 적지 않다.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많이 구하지 못한 관계로 표면적인 측면에서 이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느낀 점은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더 깊고 넓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대순사상과 중국 도교 사이의 관계, 특히 도교의 뇌법을 사용하는 종파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大巡真理会“九天上帝”信仰与 道教“普化天尊”信仰比较研究

于国庆\*

四川大学·讲师

- |                                 |                                   |
|---------------------------------|-----------------------------------|
| 一、从神源上看“九天上帝”信仰与<br>“普化天尊”信仰的异同 | 三、从度世法门上看“九天上帝”信仰与<br>“普化天尊”信仰的异同 |
| 二、从称谓上看“九天上帝”信仰与<br>“普化天尊”信仰的异同 | 结语                                |

大巡真理会是韩国颇具影响力的宗教组织之一，该教以“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即九天上帝<sup>1)</sup>）为信仰对象，以九天上帝大巡的真理为宗旨，主张通过人之改造、实现精神开辟，布德天下、救济苍生、建设地上天国。该教以赵鼎山道主在满洲奉天得九天上帝宗统继承天赋之启发为肇始，自创教以来，在韩国迅速传播，影响益深。

大巡真理会是以“九天上帝”（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为主神，其与中国道教遵奉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简称“普化天尊”）有没有关系呢？本文以此立论，从神源、称谓及其涵义、在人世的活动等角度对二者之间存在的异同作了一一比较，文中不足之处，请方家不吝指正。

---

\* 中华人民共和国山东省东营市人，哲学博士，现任四川大学道教与宗教文化研究所、老子研究院讲师，『老子学刊』、『道学研究』编辑部主任。

1) 为了行文方便，除非特殊说明，文中“九天上帝”信仰特指大巡真理会“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信仰，而“普化天尊”信仰特指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

## 一、从神源上看“九天上帝”信仰与“普化天尊”信仰的异同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即“九天上帝”，在大巡真理会中具有绝对崇高的神圣地位。从神源上看，“九天上帝”本是天地人三界之至高神真，为“匡正失常道之天地度数，开辟后天无穷仙境之运路，建设地上天国，广度所有缠身于否劫的神明与深陷灾劫的世界苍生”，遂道成肉身，降世于姜氏宗家，在这一过程中，如下两点信息非常重要：第一，上帝道成肉身，并降生于姜氏宗家。<sup>2)</sup> 第二，姜氏肇始于上古神农氏。<sup>3)</sup>

首先，我们来看上述第一条信息，即上帝道成肉身，选择在姜氏宗家降世，以姜为姓。从中国的姓氏渊源来看，姜姓是一个历史非常悠久的姓氏，大约与黄帝同时的炎帝就是姓姜。『国语·晋语四』中说：“昔少典娶于有蟠氏，生黄帝、炎帝，黄帝以姬水成，炎帝以姜水成。成而异德，故黄帝为姬，炎帝为姜。”对此，『说文』认为：“姜、神农居姜水，因以为姓。”而赵宦光『说文长笺』则反称：“水因姓而名，故从女，若水先名姜，从女便无义。”于省吾分析认为“赵说至确”<sup>4)</sup>，可见，姜姓与炎帝、神农有着莫大的关系<sup>5)</sup>。我们在此先着重分析姜姓与炎帝的关系，至于神农与姜姓之关系，我们后面再详细分析。

据『路史·后纪·蚩尤传』云：“阪泉氏蚩尤，姜姓炎帝之裔也。”『左传·哀公九年』云：“炎帝为火师，姜姓其后也。”可见，姜姓可以上溯到炎帝。此后，姜姓人一直代代繁衍不息，其中间有大人物降生建功，正如『潜夫论·志氏姓』所言：“炎帝苗胄四岳伯夷为尧典礼，折民惟刑，以封申吕，裔生尚，为文王师，克殷而封之齐，或封许向，或

2)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典经·行录』1-5（中文版），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7月版，第2页。下引『典经』同此版本。

3) 『典经·行录』1-1，第2页。

4) 于省吾：『释羌、笱、敬、美』，『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1963年第1期，第43页。

5) 关于炎帝与神农的关系，学者存在两种意见，一是认为二者为一，二是认为二者不同。笔者在此并不着重论述二者的关系，而是专注探究神农与姜姓、炎帝与姜姓的关系。



封于纪，或封于申，… 皆姜姓也。”

古人对于炎帝的描述，主要有以下数种：

『吕氏春秋』曰：“兵所自来者久矣，黄、炎故用水火矣。”此外，『吕氏春秋』之『孟夏纪』、『仲夏纪』、『季夏纪』有“其帝炎帝”语。

『白虎通·五行』曰：“炎帝者，太阳(神)也。”

『左传·昭公十七年』曰：“炎帝以火纪，故为火师而火名。”

『孔子家语·五帝』云：“故其为明王者而死配五行，是以炎帝配火。

『淮南子·天文训』云：“南方火也，其帝炎帝，其佐朱明，执衡而治夏。”

通过以上数条，我们可以分析得出这样一个结论：作为姜姓的炎帝与日神、南方、火等象征有着紧密关系。故此，“九天上帝”降生于姜姓之家实有深意。<sup>6)</sup>

明白了这点，我们再来看“姜圣上帝”降生时的情形就不难理解了：“其母权氏，讳为良德。一日赴梨坪面书山里娘家之际，梦见天空开裂为南北两半，一硕大火球覆盖全身，天地为之照亮。之后不久胎气萌动，十三个月后上帝降生。”<sup>7)</sup>所言“天空开裂为南北两半”、“一硕大火球覆盖全身”、“天地为之照亮”等现象均是对日、火象征的表现<sup>8)</sup>。在古人眼中，雷电往往与火有着密切的关系，甚至，有古人将雷与日统一起来，认为二者不可分开，由此可见，“九天上帝”具有日神和雷神的双重特征，其中，雷神的特征更为明显，所以，大巡真理会的典籍中，对“九天上帝”善用雷法的事迹多有记载：“弃天缘，悖人道，这等事岂能不遭天谴？因而，我（上帝）于今晨以雷劈加以惩戒。”<sup>9)</sup>“上帝来到京石家中，写下字符贴在墙上，说道：‘吾所到之处，天地均应知晓。’这时突然电闪雷鸣，…”<sup>10)</sup>“一时间电闪雷鸣，且迫近酒馆。上帝

6) 『典经·行录』4-17载：“世间姓氏，以风氏为初，但未能流传至今，仅有‘风采’、‘风身’、‘风骨’等描述体态之词留存了下来。其次便是姜氏，可谓姓氏之肇始，遇开辟时代，原始返本，姜氏担此大任。”（『典经』，第60页。）可见，“九天上帝”降生姜姓宗家实有深意。

7) 『典经·行录』1-9，第3页。

8) 『典经·预示』20记载：上帝自称“今吾以七十二通兴火通，吾乃三离火也。”（『典经』，第325页。）可见，“九天上帝”信仰与火有着一定的联系。

9) 『典经·行录』3-36，第41页。

朝着雷电的方向加以斥责，雷电顿时戛然消失。”<sup>11)</sup>

其次，我们在来分析第二条信息，即姜氏肇始于上古神农氏。『说文』认为：“姜、神农居姜水，因以为姓。”足见，神农与姜姓的关系。一般来说关于神农的记载，多出于战国中后期，那么神农有哪些特征呢？试举几条：

『易·系辞下』云：“包牺氏没，神农氏作。斫木为耜，揉木为耒，耒耨为利，以教天下。”

『庄子·盗跖篇』：“神农之世…民知其母，不知其父，与麋鹿共处，耕而食，织而衣，无有相害之心：此至德之隆也。”

『商君书·画策』云：“神农之世，男耕而食，妇织而衣，刑政不用而治，甲兵不起而王。”

神农在中国历史上影响巨大，后人将其作为三皇之一加以崇奉，究其原因，乃是因为其治世之时，形成了少有的民风淳朴、自由自在的社会状况与社会秩序，也正为此，后世民众，尤其是后世道教常常将神农时期尊为中国上古时期难得的理想社会模式。将道教神化理解的神农时期与“九天上帝”所建设的“后天仙境”、“地上天国”相联系，我们就不难理解“九天上帝”为什么选择降生于神农后裔之姜姓宗家之中了。

因为，据『典经』所讲：“在先天，人与世间万物皆为相克之理所支配，世间怨恨日积月累，错综复杂地充斥于三界之中。天地失其常道，各种灾祸丛生，世间暗无天日。因此，吾欲整理天地度数，调化神明，以解万古怨恨，以相生之道建后天仙境，济度世间苍生。不论大小事应由神道解冤，若能事先稳固度数并加以调化，人事便以神道为范实现自我达成，这便是三界公事也。”<sup>12)</sup>这种“地上天国”之特征，从某种角度来说，恰恰就是神农治世的再现与重建。此外，道教承接神农治世的社会思想，将之与道教的“仙境思想”相结合，提出了一些

10) 『典经·教运』1-21，第154页。

11) 『典经·教运』1-25，第157页。

12) 『典经·公事』1-3，第94页。

新的社会理想，或许其思想与大巡真理会有连贯性。<sup>13)</sup>

与大巡真理会“九天上帝”相比，首先，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不仅具有雷神的特征，其更是被尊为雷部之最高神，据『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记载，“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居于玉清天中，为群生父，为万灵师，总司五雷天临三界<sup>14)</sup>。可见，其为雷部众神之首，在道教中，许多雷法宗派均尊奉“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同时，『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还说：“雷司委心火部。”注释云：“雷师皓翁，与天地同体，日月齐明。…所以尽心于火部者，乃雷师皓翁之本情也。”<sup>15)</sup>从这里可以看出，雷神与日神、火神的关系，这一点与笔者前面对“九天上帝”神源的分析具有一致性。

其次，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也以利益众生、构建和谐人间为目标。基于人间“世衰道微，人无德行。不忠君王，不孝父母，不敬师长，不友兄弟，不诚夫妇，不义朋友，不畏天地，不惧神明，不礼三光，不重五谷，身三口四，大秤小斗，杀生害命，人百己千，奸私邪淫，妖巫叛逆”<sup>16)</sup>，“普化天尊”曾经在大罗元始天尊面前“以清净心发广大愿，愿于未来世，一切众生，天龙鬼神，一称吾名，悉使超涣。如所否者，吾当以身身之”<sup>17)</sup>，并“能以智慧力，摄伏诸魔精。济度长夜魂，利益于众生。如彼银河水，千眼千月轮。誓于未来世，永扬天尊教。”<sup>18)</sup>这一点也与“九天上帝”之大巡目标有着异曲同工之妙。

13) 对此，日本学者福井康顺等人监修的『道教』（第三卷）指出，道教对于韩国的新兴宗教产生了重要影响，其中，就有道教对于大巡真理会的影响，而这种影响首先体现在“仙境思想”中：“后来成为呼哆教教祖的姜一淳也叙述‘后天仙境’的建设，说：‘我欲主宰三界之大权，以造化开辟大地，开拓不老长生之仙境，拯救沉溺于苦海之众生。’（『大巡典经』）这也是值得注意的。”（日）福井康顺等监修：『道教』（第三卷），朱越利等译，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版，第109页。

14)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文物出版社、上海书店、天津古籍出版社 1988年版，第1册第758页。下引『道藏』同此版本。

15)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73页。

16)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第1册第761页。

17)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第1册第758页。

18)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第1册第761页。

## 二、从称谓上看“九天上帝”信仰与“普化天尊”信仰的异同

大巡真理会“九天上帝”与道教“普化天尊”除了在神源上具有一些可以比较的内容外，二者在称谓及其含义上也存在不少异同，今以『大巡真理会要览』与『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为主，兼及其他资料，试分析二者之异同。

首先看下表中所摘引的原文：

	大巡真理会“九天上帝”信仰	道教“普化天尊”信仰
称谓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 (简称“九天上帝”) 19)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又称九天贞明大圣) 20)
九天	“九天为上帝统察三界、匡定乾坤、调炼运化之最高阶位。” 21)	“九者，阳数也，乃天道也。主于震宫，故东南有九炁之说也，即雷师出入之地也。天者，至大至圣无极无为之炁也。” 22) “九天者，乃统三十六天之总司也。始因东南九炁而生，正出雷门，所以掌三十六雷之令，受诸司府院之印，生善杀恶，不顺人情。盖以九天之名者，取其阳刚而不泯者之谓也。” 23)
应元	“不仅指所有的天体，亦包括森罗万象，意指若不应天命，则无一生成。” 24)	“应者，无物不承天命而生也。元者，至大也。又曰万善之长也，乃四时之首也，五行之先也。” 25) “应元者，仰惟元始祖劫一炁分真，玉清真王应元之体。” 26)
雷声	“天令、仁声。雷由阴阳二气相遇而成。雷为声之体，声乃雷之用。雷声意含分天地，动静进退之变化升降天气与地气，使万物生长、生成变化、支配滋养。” 27)	“雷者，乃天令也。掌生杀生杀之权，动静人莫可测，万神之奉行也。声者，生也，万物得雷震声而萌也。又曰天不言以雷代言也。” 28) “雷者，阴阳二炁结而成雷，既有雷霆，遂分部隶九天雷祖。因之以剖析为五属，神霄真王用之，以宰御三界。…声者，天地之仁声也。春分五日，雷乃发声，可闻百里，震九天而动九地，惊四海而翻四溟，太上曰：吾不发阴阳之声，吾之大音无以召，故鼓之以雷霆，以声召气也。雷帝之前，有雷鼓三十六面，凡行雷之时，雷帝亲击本部雷鼓一下，即时雷公雷神兴发声也。” 29)
普化	“宇宙万有依天尊德化为有形和无形。” 30)	“普者，上天下地、四维八荒、无形有形也。化者，天道阴阳运行则为化，又自无而有、自有而无则为化，万物生息则为化。老子云：我无为而民自化。又云以德化是也。” 31)

天尊	“以雷声普化群生的万物万方之至大至圣之三界至尊。” <sup>32)</sup> “上天有三十六天，上帝统而率之，掌管电气，支配滋养天地万物，是为雷声普化天尊上帝也。” <sup>33)</sup>	“天尊者，至大至贵之称也。” <sup>34)</sup> “普化天尊者，自浮黎元始天尊生九子，玉清真王化生雷声普化天尊。天尊以历劫应化，随时示号。本元始祖劫一炁分真，乃玉清真王，九霄主宰。一月四辰监观万天，浮游三界九州万国，赏善录愆，是为普化至大至贵也。” <sup>35)</sup>
姜圣上帝	“以三界大权主宰并统辖宇宙森罗万象、观鉴万天、全知全能的无上天帝之尊称。” <sup>36)</sup>	

根据以上多条引文，笔者对“九天上帝”之称谓涵义与“普化天尊”之称谓涵义之间的同异作出如下比较、分析：

	相同之处	差异之处
称谓	二者均以“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为称谓之主体。	“九天上帝”较“普化天尊”多出“姜圣上帝”之称谓。另外，“普化天尊”还有一个称呼即“九天贞明大圣”，这点为“九天上帝”所无。
九天	二者均赋予了“九天”在神仙系	“普化天尊”由于被尊为雷部众神之主，故其在解释

- 19)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大巡真理会要览』（中文版），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7月版，第2页。下引『大巡真理会要览』同此版本。
- 20) 参见『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第1册第759页。
- 21) 『大巡真理会要览』，第2页。
- 22)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上，『道藏』，第2册第569页。
- 23)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上，『道藏』，第2册第569页。
- 24) 『大巡真理会要览』，第3页。
- 25)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69页。
- 26)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69页。
- 27) 『大巡真理会要览』，第3页。
- 28)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69页。
- 29)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69-570页。
- 30) 『大巡真理会要览』，第3页。
- 31)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69页。
- 32) 『大巡真理会要览』，第3页。
- 33) 『典经·教运』2-55，第226页。
- 34)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69页。
- 35)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集注』卷上，『道藏』，第2册第570页。
- 36) 『大巡真理会要览』，第3页。

	统中较高的阶位，以此明其所奉神灵具有至高的神阶、神通和神权。	“九天”的时候，也多以此意阐释，即称“九者，主于震宫，即雷师出入之地也；九天者，乃统三十六天总司也。始因东南九炁而生，正出雷门，所以掌三十六雷之令”。此外，道教没有把“普化天尊”作为本教最高神。“九天上帝”信仰中只强调其阶位在该教中最高，没有明确解释其与雷神之关系。
应元	二者均认为应元乃是天地万有要想成就一切，无一不须“应天命、承天命”才可。	“普化天尊”信仰在解释“应元”的时候更为细致，其将炁、四时、五行、先天神真（玉清真王）等引入进来，较为系统化。
雷声	二者均认为阴阳二气相遇而成雷；雷声是雷之用，雷是雷声之体；同时，二者均认可雷通过雷声来主宰万事万物，以此明雷对万物而言不只有杀之约束力，更有生之意义。	“普化天尊”信仰在讲“雷声”之时，将“声”训解为“生”，以此明万物得雷声而萌生；此外，其还将太上老君与其他仙真引入进来，说明雷声乃是神仙之行为。这点为“九天上帝”信仰所无。
普化	二者都认为宇宙万物，无论是有形还是无形，均得此生化延续。	“普化天尊”信仰将通过“天道阴阳、无为自化”等理论，使“普化”理论与具体过程更为细致圆融。
天尊	二者均认为天尊乃是至尊至贵之意。	“普化天尊”信仰除和“九天上帝”信仰一样从化生万物的角度解释“天尊”外，还从道教至上神“元始天尊”之子的角度说明“普化天尊”之至大至贵，这点为“九天上帝”信仰所无。
姜圣上帝		“九天上帝”信仰所独有。

### 三、从度世法门上看“九天上帝”信仰与“普化天尊”信仰的异同

大巡真理会『典经』中记录了“九天上帝”降生人间后的一系列修行度世法门，诸如忏法、符咒、医术、儒学等等。下面，我们通过分析一些典型的修行度世法门来解读“九天上帝”信仰的内在特征，并比较其与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所存在的异同：

第一，大巡天下的思想。大巡真理会所讲“九天上帝”之大巡的意思，

乃是由于诸位仙真“一起仰望九天控诉人类与神明界之罪恶与劫难”，所以，九天上帝才“降临西洋大法国之天启塔，大巡天下，临于东土”<sup>37)</sup>，由此可见，其大巡的意思乃是指“三界大巡、开辟公事之意”，具体来说，就是因为人间存在混乱、不公与罪恶，九天上帝遂道成肉身，以自然人之身份降临世间，向世间传播大巡之真理，而待其重回天界之后，则由后继者继续播延大巡之真理，以最终通过精神开辟，改造民众，还通过布德天下、救济苍生，来实现地上神仙，建设地上天国。

与之相对，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中也有“巡视天下”的思想，《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云：“吾是九天贞明大圣，每月初六及旬中辛日，监观万天，浮游三界。若或有人欲学道，欲希仙，欲道九玄，欲释三灾，当命正一道士，或自同亲友于楼观、于家庭，于里社，酌水馈花，课诵此经，或一过，三五过，乃至数十百过，即得神清气爽，心广体胖。凡所希求，悉应其感。”<sup>38)</sup>在这里，道教所讲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巡视天下的思想，从根本上来说，与“大巡思想”一致，即都是通过巡游天下凡间，改恶从善，使得凡人世间不再有罪恶与劫难。其中，在大巡过程中，传播教理，使教理教义深入人心也是二者相一致的地方。不过，从细微处来说，与“大巡思想”相比，道教“普化天尊”的巡监思想有些许不同：其一是“普化天尊”没有道成肉身，并以自然人的方式来显化人间，其采取的方式多是亲临人间，或者通过随声显化的方式来实现巡监之目的；其二是“普化天尊”没有采取通过创教的方式来实现其建立人间仙境的目标，其多侧重于随缘宣讲教理教义以及采取某些神通神力来进行。

第二，解冤相生的思想。大巡真理会的宗旨是：“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sup>39)</sup>其中，“解冤相生”意指以解冤相生大道之真理解冤，终天地公事与报恩，从而解积万古之所有冤郁，使世界变成无相克之道化乐园。<sup>40)</sup>如果从这个角度来看，“解冤相生”即可以看作是一

37) 『大巡真理会要览』，第1页。

38)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第1册第759页。

39) 『典经·教运』2-32，第210页。

40) 参见『大巡真理会要览』，第4页。

种追求宗旨，同时也可以看作是实现建后天仙境之宗旨的一种手段和途径。『典经』中有多处站在修行度世手段的视角上阐述了“解冤相生”：

“在先天，人与世间万物皆为相克之理所支配，世间怨恨日积月累，错综复杂地充斥于三界之中。天地失其常道，各种灾祸丛生，世间暗无天日。因此，吾欲整理天地度数，调化神明，以解万古怨恨，以相生之道建后天仙境，济度世间苍生。不论大小事由神道解冤，若能事先稳固度数并加以调化，人事便以神道为范实现自我达成，这便是三界公事也。”<sup>41)</sup>

“天下受雄霸之苦久矣，故吾将以相生之道化民靖世。从今之后汝当正心，欲成就大人者积好生之德，岂可杀害亿兆苍生而求一己之生？”<sup>42)</sup>

“匡定先天之度数，开启后天无穷仙境之运路，以解相克所致一切冤恨，以相生之道济度世间苍生，此上帝之大志已秘传于世间矣。”<sup>43)</sup>

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中也多处流露出类似“解冤相生”的思想。『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多处讲到，人间之种种罪恶与劫难多与世人所结之冤有关，要想消除劫难与罪恶，当须从解冤入手。如其讲：“沈疴伏枕，痼疾压身，积时弗廖，求医罔效，五神无主，四大不收。…或地府三十六狱冥官七十二司有诸冤枉，致此牵缠。或盟诅咒誓之所招，或债垛负偿之所致。三世结衅，累劫兴仇，埒其咎尤，库其执对，皆当首谢，即诵此经。”<sup>44)</sup>“凡诸动作兴举，出入起居，不知避忌。如遇官符口舌，则使人击聒。晓夜煎爇，多招唇吻。面是背非，动致口牙。盟神诅佛，始于谤讟，终于诟詈。由是狱讼生焉，刑宪存焉。若欲脱之，即诵此经，遂得口舌港消，官符永息。”<sup>45)</sup>就道教提及的“解冤”来看，其往往着眼于一些具体的是非、病痛、劫难，而解决的方式多以诚心念诵『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为主。比起大巡真理会所提及的“解冤相生”，无论在思想广度上、

41) 『典经·公事』1-3, 第94页。

42) 『典经·教运』1-16, 第152页。

43) 『典经·预示』6, 第322页。

44)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 『道藏』, 第1册第759页。

45)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 『道藏』, 第1册第759-760页。



重要性上，还是在理论体系的建构上，均比较单一而简单，没有形成一定的理论系统。

第三，随声显化的思想。“九天上帝”在修行度世之时，提出了“随声显化”的方便法门，所谓“随声显化”是指深处困境之人倘若呼喊神真之称号，相应的神真便会前来救助，这种方便法为九天上帝所熟用，据『典经』所载：“再令公又点灯时，孙氏濒死般倒在一旁。上帝对其，道：“唤我名字。”孙氏这才勉强打起精神，呼唤上帝的名字，遂苏醒了过来，恢复了元气。上帝就此对众从徒，道：“是为有错之人，此后怪病将横行世间。届时，眠者于卧床上，坐者于座位上，行人于道路上，或难以起身，或无法移动，或仆倒于路旁，临于此死境，唤我名字便能得救。”<sup>46)</sup>

“随声显化”的方便法门在道教中也多有运用，例如信众耳熟能详的“太乙救苦天尊”便常常采用这种方式救助世人。而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也经常采用这种方式救护凡人，『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中多次提道：“一切众生，天龙鬼神，一称吾名，悉使超涣。”“若未来世，有诸众生，得闻吾名，但冥心默想作是念，言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或一声，或五七声，或千百声，吾即化形十方，运心三界，使称名者，咸得如意。十方三界，诸天诸地，日月星辰，山河草木，飞走蠢动，若有知若无知，天龙鬼神，闻诸众生一称吾名，如有不顺者，馘首刳心，化为微尘。”“遇诸险难，一心称名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悉得解脱。”<sup>47)</sup>

第四，善用忏悔的思想。大巡真理会之“九天上帝”在劝化世人的时候，常常采取忏悔之形式，比如：

“上帝对初遇而追随自己的人，通常令其一一回忆过去存在的缺失，心中忏悔，以求饶恕。上帝对于尚未意识到的错误也一一指出，并为其消除身上的冤神和劫厄。”<sup>48)</sup>

“亨烈遭此大辱，回来如实禀告上帝。上帝道：“端来清水，忏悔己

46) 『典经·预示』41，第331页。

47) 参见『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经』，『道藏』，第1册第758-761页。

48) 『典经·教运』1-2，第145页。

过。”亨烈便遵照执行。后来，金重九患重病，濒临死境。上帝从亨烈那里听说此事后，再次忠告亨烈道：“今后若再有此事，抱怨对方之前，切莫忘记先观照自己的过失。若过失在你，则皆得以解除。若过失不在你，毒气将归原处。”<sup>49)</sup>

“九天上帝”所使用的忏法，其主要程序是先由犯过者自我省思，自我忏悔，而后求得上帝之原谅与宽恕，从而消除身上的冤气和劫难。从根本上看，“九天上帝”之忏法乃是由其“解冤相生”而来，是“解冤相生”的具体应用。不过，实事求是地说，这种忏法在形式上还是相对比较简单，在内容上还是相对比较纯朴。

道教依托“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形成了『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忏』<sup>50)</sup>，其既是一本重要经书，同时也是一种忏法和忏仪。在从其功用上看，大巡真理会的“忏法”与道教的忏仪具有一致性，即一方面着眼于修道者的自我觉悟与度己修行，另一方面，着眼于社会的治理，并特别强调其弘道传教、扬善止恶的内容，从这种意义上看，二者具有一致性。

然而，大巡真理会的“忏法”无论在形式还是在内容上，都相对比较简单，而与之相对，道教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忏”具有一系列的必备程式，要相对复杂、成熟得多，该忏法以“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为依托，以宝忏为主要形式，通过规劝民众自觉修善戒恶，从而实现自修自度、劝世从善的目的。从整个忏法过程来看，其无论在理论建构、仪式程序等方面，还是在信众参与过程、影响面等方面，都已基本成熟，从而起到的实际效果也更好。

造成这一差异的原因，恐与道教对于忏法的运用历史十分久远有关。在中国文化系统中，围绕“忏”而形成一种自悔己过、谢罪祈福的宗教形式，很早就已经出现，如『后汉书·蔡邕传』就提到以忏悔罪恶祈求神灵宽宥的解除方术，其注云：“解除谓谢过也。”<sup>51)</sup>不过这种忏法在最初萌芽时并不是很完备。早在制度道教创立之初，太平道张角

49) 『典经·教法』2-28, 第252页。

50)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忏』, 『道藏』, 第3册第549-552页。

51) 『后汉书』卷60『蔡邕传』, 北京: 中华书局1965年版, 第7册第1993页。

以及五斗米道张修便已经运用忏法来作为修行之法：“光和中，东方有张角，汉中有张修。骆曜教民缅甸法，角为太平道，修为五斗米道。太平道者，师持九节杖为符祝，教病人叩头思过，因以符水饮之，得病或日浅而愈者，则云此人信道，其或不愈，则为不信道。修法略与角同，加施静室，使病者处其中思过。又使人为奸令祭酒，祭酒主以老子五千文，使都习，号为奸令。为鬼吏，主为病者请祷。请祷之法，书病人姓名，说服罪之意。作三通，其一上之天，著山上，其一埋之地，其一沉之水，谓之三官手书。使病者家出米五斗以为常，故号曰五斗米师。”<sup>52)</sup>隋唐时期，随着忏法以及忏仪的逐步完善，道教的忏仪不但数量大增、质量有所提升，而且忏法的形式与过程更为完备，现存『道藏』中约记有此类忏仪多达二三十种。明清时期，道教忏仪（或称法忏、宝忏、忏法等）在道教内部和普通民众之中大行其道，考大约成书于清嘉庆年间、由张持真编纂的『忏法大观』，其记载有『紫府玄祖法忏』、『西华金母法忏』、『碧落慈航宝忏』、『太乙救苦宝忏』、『东岳圣帝法忏』、『文帝元皇宝忏』、『吕帝无极宝忏』、『舜帝忠武宝忏』、『三茅真君法忏』等三十二种忏法，以道教对于忏法运用的悠久历史和丰富完善为基础，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玉枢宝忏”能够较为成熟则不足为奇了。

**结语：**通过从神源、称谓及其涵义、度世法门等角度对大巡真理会“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信仰与道教“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之间存在的异同进行一番梳理、比较之后，笔者认为，两种信仰之间存在很多相一致的内容，当然，存在差异的内容也不少，由于笔者所见到的有关“九天上帝”信仰的资料非常少，故只能蜻蜓点水式对之进行解读。不过，在这个研究过程中，笔者深深感到，倘若能够借助一些新资料，从更深层、更广阔的视角对之展开研究，或许可以进一步揭示大巡真理会与中国道教，尤其是中国道教之某些雷法宗派所存在的千丝万缕的关系。

52) 『三国志』卷8『张鲁传』裴松之注引『典略』。

## 【参考文献】

- 『典经』, 韩国: 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版。
- 『大巡真理会要览』, 韩国: 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版。
- 『道藏』, 文物出版社、上海书店、天津古籍出版社 1988年版。
- 『藏外道书』, 巴蜀书社 1992年版。
- 范晔, 『后汉书』, 北京: 中华书局 1965年版。
- 陈寿, 『三国志』, 中华书局 1982年版。
- 于省吾, 『释羌、笱、敬、美』,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1963年第1期。
- 福井康顺等监修, 『道教』, 朱越利等译,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版。
- 尚学锋、夏德靠注, 『国语』, 中华书局 2007年版。
- 许慎, 『说文解字』, 上海古籍出版社 2007年版。
- 罗泌, 『路史』, 景印文渊阁四库全书本。
- 郭丹、程小青、李彬源译注, 『左传』, 中华书局 2012年版。
- 王符, 『潜夫论笺校证』, 中华书局 2011年版。
- 许维遹, 『吕氏春秋集释』, 中华书局 2009年版。
- 陈立, 『白虎通疏证』, 中华书局 1994年版。
- 王国轩、王秀梅注, 『孔子家语』, 中华书局 2009年版。
- 何宁, 『淮南子集释』, 中华书局 1998年版。
- 黄寿祺、张善文, 『周易译注』, 上海古籍出版社 2007年版。
- 郭庆藩, 『庄子集释』, 中华书局 2012年版。
- 高亨, 『商君书注译』, 清华大学出版社 2011年版。

▪Abstract▪

## 대순진리회 구천상제 신앙과 도교 보화천존 신앙 비교

위귀칭(于国庆)

중국사천대학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하 ‘구천상제’)

를 주신(主神)으로 신앙하는 종교단체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와 중국 도교에서 모셔지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하 ‘보화천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토대로 본 글에서는 이 신들의 기원과 칭호, 도세법문(度世法門 : 세상을 제도하고자 펼친 법도) 등의 관점에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하나씩 비교해 보았다.

먼저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구천상제’와 ‘보화천존’을 비교해보면, ‘구천상제’는 천지인 삼계의 최고신으로서 강씨 가문을 선택하여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다. 강씨 성은 상고 신농씨에서 시작되었는데, 고대 문헌에 근거하면 신농씨는 태양신, 남쪽, 불(火) 등으로 상징화된다. 이런 상징들은 ‘구천상제’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나타난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다”, “큰 불덩이가 몸을 덮치다”,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등의 현상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교의 ‘보화천존’은 뇌신의 특징을 가지면서 일신(日神), 월신(月神)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면들은 신농씨로부터 분석한 ‘구천상제’의 신적 기원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도교에서는 신농씨가 다스리던 세상을 중국 상고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구천상제’가 건설하려는 후천선경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구천상제’가 신농씨의 후손인 강씨 종가에서 태어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도교의 ‘보화천존’ 역시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인간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것은 대순진리회 ‘구천상제’가 행한 대순의 목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천상제’와 ‘보화천존’은 칭호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구천상제’에는 ‘보화천존’에 비해 ‘강성상제’라는 칭호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교에서는 ‘보화천존’을 최고신으로 모시지 않으며, ‘구천상제’ 신앙에서는 ‘보화천존’ 신앙에서와 달리 뇌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구천상제’와 ‘보화천존’의 도세법문을 비교해보면 첫째, 구천상제는 세상이 혼란, 불공평, 죄악에 빠졌기에 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강림한 후 대순진리를 선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보화천존도 천하와 인간세상을 순시하여 죄악과 겁액을 없앤다는 ‘순시천하(巡視天下)’ 사상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보화천존’은 순시할 때 인간의 육신으로 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화천존’이 인간 세상에 창교의 방법을 통하여 선경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화천존’은 교리를 가르치거나 신통을 발휘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구천상제’가 내린 가르침인 해원상생은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다. 도교의 ‘보화천존’도 인간이 지은 많은 죄악과 겁액은 세상 사람들이 맺은 원한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겁액과 죄를 해소하려면 해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도교에서 말하는 ‘해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인간의 시비, 질병, 겁액에 관한 것이며, 그 해결 방법으로는 주로 마음속으로 『옥추보경』을 읽는 것이다. 이를 ‘구천상제’의 ‘해원상생’ 가르침과 비교하면 그 사상의 폭이나 깊이, 중요성, 이론적 측면 등에서 비교적 간단한 형태

로서 체계적인 면모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셋째, ‘구천상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 신명의 호칭을 부르면 그에 상응하는 신명이 달려와서 구원해준다는 ‘소리감응’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도교의 ‘보화천존’ 역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구천상제’는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 그 다음에 상제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 원한이 풀리게 된다는 참법(懺法 : 懺悔法)을 세인(世人) 교화에 자주 사용하였다. 물론 이것은 해원상생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다. 기능면에서 보면 이 방법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참(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懺)』의 참의(懺儀)와 공통되는 점이 있다. 참의는 수도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도에 정진하며,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포덕에 힘쓰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널리 펼친다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양자는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와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지만 동시에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만약 더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더욱 깊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한국 대순진리회와 중국 도교, 특히 도교의 뇌법종파(雷法宗派)와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구천상제, 도교, 보화천존

-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3년 11월 18일~22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24일

